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2.187>

JCCT 2024-3-24

스포츠 재활 교육이 심리적 반발을 통해 진로 및 취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sports rehabilitation education on career and employment will through psychological resistance

송기재*

Song Ki-Jae*

요약 한국의 교육 생태계로 인해 성적에 따라 스포츠 재활 전공에 진학한 학생들이 학과에 적응하고, 진로를 찾고, 취업 의지를 갖도록 동기 부여 등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나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재활 교육이 심리적 반발을 통해 진로 및 취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으로 스포츠 재활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21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스포츠 재활 교육자의 지식이 자발적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포츠 재활 교육자의 역량이 자발적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포츠 재활 교육자의 역량이 비자발적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발적 심리가 진로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자발적 심리가 취업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반대로 비자발적 심리가 취업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심리적 반발을 통해 진로 및 취업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공 교육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스포츠 재활 교육, 심리적 반발, 진로 의지, 취업 의지

Abstract Due to the educational ecosystem in South Korea, there is a significant need to explore a new balance for students who pursue sports rehabilitation education based on their academic performance, in order to help them adapt to their majors, find career paths, and foster motivation for employment. There is a lack of related research in this crucial ph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the impact of sports rehabilitation education on career aspirations and employment motivation through psychological reactions. The research methodology involved conducting an online survey from December 11th to December 28th, 2023,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undergoing sports rehabilitation education, with a final collection of 212 survey responses used for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firstly, that the knowledge of sports rehabilitation educators has a positive influence on voluntary psychology. Secondly, the competence of sports rehabilitation educators has a positive impact on voluntary psychology. Thirdly, the attitude of sports rehabilitation educators negatively affects involuntary psychology. Fourthly, voluntary psychology positively influences career aspirations. Finally, voluntary psychology positively influences employment motivation, while conversely, involuntary psychology negatively affects employment motivation. These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ports rehabilitation education that influences career paths and employment motivation through psychological reactions.

Key words :Sports Rehabilitation Education, Psychological Reactions, Career Aspirations, Employment Motivation

*정회원, 나사렛대학교 스포츠재활트랙 조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4년 1월 22일, 수정완료일: 2024년 3월 2일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15일

Received: January 22, 2024 / Revised: March 2, 2024
Accepted: March 15, 2024

*Corresponding Author: atcsong@kornu.ac.kr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ports Rehabilitation, Korea Nazarene University, Korea

I. 서론

스포츠 재활은 근골격계 부상으로부터 의료적 치료를 마친 대상자에게 운동을 통해 회복과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 분야로, 스포츠 재활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운동 생리학, 해부학, 임상적 기술에서부터 환자 관리까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18]. 대학 교육은 학생들이 부상을 당한 사람들의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고, 부상자들이 회복하도록 하며 도와줄 수 있는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15]. 특히 스포츠 재활 분야는 학생들이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과 부상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고,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더불어 재활 전문가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18]. 이 교육과정으로 미래의 스포츠 재활 전문가들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이끌어 내고, 부상자들의 임상 환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 및 실천을 알려주는 교육으로 학생들은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 [4]. 이러한 일반적인 스포츠 재활 전공 학습 외에도 학생들에게 심리적 동기의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심리적 동기는 재활 계획, 부상 평가 및 회복 전략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며, 학생들의 학습 의지를 비롯하여 스포츠 재활 분야에 대한 직업적 동기와 취업 및 진로 의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학 교육은 스포츠 재활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전문성을 키우고 직업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초 교육을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대학은 예비 대학생들의 수 감소로 인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을 좋은 학교를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29]. 이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명문 대학의 스포츠 재활 전공을 선택하여 진학하며, 그곳에서 더 많은 진로 선택의 기회와 교육 자원이 집중되어 진다. 한편 학업에 대한 의욕이 낮은 학생들은 교육 자원이 부족한 학교에 입학하여 상대적으로 진로 선택 기회도 적은 상황에 직면한다 [18]. 더욱이 스포츠 재활 전공에 흥미가 낮지만 학업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직업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교육 생태계에서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를 시사한다.

즉, 스포츠 재활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과정에서 제공되는 수업은 ‘스포츠 재활’ 전공 수업이 대부분으로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정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한국의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전공에 대한 흥미보다는 수능 또는 학업 성적으로 입학한 대학생들은 전공 분야에 대한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된다. 특히 이러한 학생일수록 학과 및 교육에 대한 헌신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대학의 수업 과정에서 심리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직업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공에 흥미를 갖고 진로를 선택하여 입학한 학생들은 직업 동기가 높고 교육과정에도 더 열의를 보일 확률이 높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표는 스포츠 재활 교육이 심리적 반발을 통해 진로 및 취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과 스포츠 재활 전공 학생들이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초석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스포츠 재활 교육

스포츠 재활 교육이란 일반인이나 운동선수가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 기능의 일부 손실을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는 교육 과정이다 [18]. 해당 분야의 최신 연구를 살펴보면, 부상 유형의 분류와 분류에 따른 재활 방법에 대한 연구 [17], 특정 재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주제, 최신 재활 기술의 적용 및 혁신에 대한 연구 [10], 그리고 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역량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27]. 그리고 최근에는 재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술 자체의 혁신에 대한 연구 또한 각광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VR)을 접목한 재활 기술 또는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활용한 재활 기기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주제로 확장되어 발전하고 있다 [4, 15, 28].

스포츠 재활 교육의 주된 목표는 부상자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회복 과정을 지원하여 일상으로 복귀하거나 부상 전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8]. 즉, 부상의 정도 및 분류, 심각성에

따라서 대상자에게 맞는 개별화된(customized)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신체 자체 기능의 회복과 운동 능력을 원래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포츠 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이 지속될 때 전문가가 배출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교육은 유연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교육자의 지식 및 역량이 사회의 요구도에 부합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적절한 프로그램인지 확인하기 위해 스포츠 재활 교육은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첫째로 교육자 교수법은 스포츠 재활을 교육하는 강사의 과목과 교육 기술이 학습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고 교육의 목표에 부합한 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두 번째로 교육자 지식 및 역량은 교육자의 전문 지식과 역량을 파악하여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역량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세 번째로 스포츠 재활 교육 내용은 학습자들이 재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재활 기법, 부상 예방, 심리적 지원 등 필수적인 교육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환경은 운동장, 병원, 실습실 등 환경이 학습하는 태도를 최대로 이끌어 낼 수 있고 학습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이의 항목들은 교육생들이 다양한 스포츠 재활을 진행하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위의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스포츠 재활 교육이 학습자들에게 필수적이고 의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자 교수법, 교육자 지식 및 역량, 교육생 역량, 스포츠 재활 교육 내용, 스포츠 재활 교육 환경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2.2 심리적 반발

심리적 반발(Psychological Reactance)이란 사람이 자신의 선택권 혹은 자유가 억압되어 제한받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뜻한다 [26]. 즉, 심리적인 반응은 심리적 동기인 독립성 및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반응으로 자신의 자유를 회복하려는 시도에서 나타난다. 심리적 반발에 대한 최신 연구들은 다양한 외적 상황에서 반응하는 개인의 심리적 반발과 영향 요인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건강에서부터 마케팅까지 보

건 및 상업 관점에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12].

교육 분야에서 심리적 반발은 개인이 교육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 및 동기, 자신의 자유 중요성,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반발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11]. 이렇게 영향을 받은 개인의 심리적 반발이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서 행동 변화 또는 의사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교육 분야에서 학습자들이 학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학습 태도, 학습 과정, 궁극적으로 졸업 후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사회적 제약에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심리적 반발 요소의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뿐더러 개인이 처한 환경 등 사회적 요소를 이해하여 개인의 심리적 반발을 경감시키거나 예방하는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에서 인간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때 심리적 반발은 이런 행동 습관을 이해할 때도 필요한 변수로 설명되어 진다. 즉, 사람의 자유가 침해당하거나 선택권이 박탈당하는 등 심리적 반발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반응하여 행동으로 나타내는지 확인 하는 것으로 측정한다 [25]. 스포츠 재활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어떤 심리적 반발이 발생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 구성 및 정책 발의, 심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심리적 반발은 자발적 심리적 반발과 비자발적 심리적 반발로 구분한다 [26]. 우선 자발적 심리적 반발이란 심리적 반발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해 개인이 능동적으로 저항하는 방식을 뜻한다. 반대로 비자발적 심리적 반발은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심리적 저항 방식으로 심리적 반발을 느낄 경우 반사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을 의미한다. 심리적 반발을 구분하여 어떤 작용으로 심리적 반발이 발생하는지 조사하고, 스포츠 재활 학습자들의 심리적 반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정리처럼 심리적 반발을 자발적 심리적 반발과 비자발적 심리적 반발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2.3 진로 의지

진로 의지(Career Aspiration)는 진로 열망이라고도 불리며 개인이 구체적인 직업을 갖고자 하거나 특정 경

력을 쌓기를 원하는 강한 목표 또는 희망을 뜻한다 [8]. 이에 최신 연구들은 진로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13]. 영향 요인으로 개인 성격, 경제적 상황, 가치관, 교육 환경 및 사회적 지원 등 세분화되어 분석되고 있고, 진로 선택에 있어 문화적, 사회경제적, 성별 차이가 미치는 영향이나 진로 의지에 미치는 진로 상담 프로그램 또는 교육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이 모여서 진로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내면의 심리적 요소는 이러한 외향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궁극적으로 진로 의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 글로벌화 및 기술 발전으로 인한 진로 의지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으나, 변화하는 시대에서 재할 교육 학습자들의 심리적 반발이 진로 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7]. 새로운 시대에서 취업 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으며, 스펙을 쌓고, 진로를 개발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진로 의지 선행연구들은 한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문화적, 성별 차이를 밝히고자 한 결과들도 보고되었으며 [3], 진로 의지에 미치는 기술 발전 및 글로벌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이 직면하는 변화의 시대에서 경력 개발과 새로운 도전을 이해하고자 하며, 이런 변화의 상황이 개인에게 미치는 목표 설정 및 진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23]. 이런 선행 연구들은 진로 의지를 강화하는 방법과 개인의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상담 전략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1]. 다음으로 진로 의지 관련 최신 연구 결과는 진로 결정에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요인들을 조사하고 그 결론을 도출하여 보고하였다. 또한 개인적 특성인 개인의 감정적 안정 정도, 자기 탄력성 및 자기 효능감이 진로 의지에 주는 영향 관계 관련 연구들이 있었다. 더 나아가 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진로를 개발을 위해서는 개인의 경력 향상 방안 및 효과적인 전략을 제안하여, 동기 부여를 통한 진로 목표를 달성과 지원을 목표로 연구되었다 [24].

따라서, 스포츠 재활 교육에서 진로 의지 간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때, 학습자들이 스포츠 재활 교육에 대

한 강한 진로 개발 의지가 학습자들이 관련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에 더 집중하여 수강하도록 하는 심리적 동기가 될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이 스포츠 재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할수록 스포츠 재활 기술과 지식을 주체적으로 습득한다고 예상되며, 이러한 기술 및 지식은 학습자들이 사회에 나아가 스포츠 재활을 수행해야 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로 의지는 스포츠 재활 교육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경력 개발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의미 있는 요소로 고려된다.

2.4 취업 의지

취업 의지란 일정한 직업을 목표로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는 개인의 강한 결심 혹은 욕구 등을 의미한다 [1]. 취업 의지의 상호 작용에 대한 최신 연구는 취업 의지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취업 의지와 개인의 경험, 기술, 교육 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들이었다 [19]. 그리고 취업 의지의 원인 관련 선행 연구는 취업 의지에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다 [16]. 해당 연구 결과는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준비 과정에서 취업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동기 부여하는 전략에 대해 주요한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원인에는 자기효능감을 포함하여 교육 이력 및 훈련 경험, 경력 목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최신 선행연구는 현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의 경력 계획 및 취업 의지에 미치는 무인화, AI 등 기술 발전, 노동 시장에 대해 다루고 있다 [19, 20]. 이는 현대화 사회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교육생들에게 취업 의지를 높이고 경력 개발에 도움 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연구이며, 개인의 취업 의지가 효과적인 경력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취업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수적인 매개 역할로써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다루고 있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 재활 교육과 취업 의지 관련하여 스포츠 재활 분야에 취업할 예정인 교육생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을수록 교육 과정에서 성취도가 높고 참여도가 높은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때 이런 의지는 심리적 반발 요소로 자발적으로 작용할 때

표 1. 측정 항목
 Table 1. list of measurement

| 변수 | 측정 항목 | 근거 |
|-------|---|----------|
| 교수법 | 강사의 교육 과정 진행 속도는 적절하였다. | [13, 21] |
| | 강사의 강의 기법은 효과적이었다. | |
| | 강사는 강의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였다. | |
| 교육자 | 강사는 교육 중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잘하는 편이다. | [13, 21] |
| | 강사는 교육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 |
| | 강사는 교육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하였다. | |
| 교육생 | 나는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잘 습득하는 편이다. | [13, 21] |
| | 나는 항상 도전적 목표를 잘 세우는 편이다. | |
| |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는 편이다. | |
| 교육 내용 | 나는 스포츠 재활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만들고 싶은 편이다. | [13, 21] |
| | 나는 스포츠 재활 관련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고 싶은 편이다. | |
| | 나는 평소 스포츠 재활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 |
| 교육 환경 | 편의시설이 쾌적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편이다. | [13, 21] |
| | 강의실 및 기자재는 충분한 편이다. | |
| | 교육장은 스포츠 재활 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분위기를 갖추고 있는 편이다. | |
| 자발적 | 나는 규칙이나 절차를 잘 지키는 편이다. | [26] |
| | 나는 학과(조직)의 변화에 동참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
| | 나는 학과(조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편이다. | |
| 비자발적 | 규칙을 대하면 저항하고 싶어지는 편이다. | [26] |
| |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편이다. | |
| |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으면 간섭 받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 편이다. | |
| 진로 의지 | 나는 진로를 확실히 결정해 놓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 [8] |
| |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편이다. | |
| | 나는 원하는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 데 관심이 많은 편이다. | |
| 취업 의지 | 나는 스포츠 재활 관련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 [1, 16] |
| | 나는 스포츠 재활 관련 취업을 위해 세워놓은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는 편이다. | |
| | 나는 스포츠 재활 관련에 있어 취업하려는 의향이 뚜렷한 편이다. | |

교육 참여도가 높고 자신의 진로를 자율성에 따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비자발적으로 작용할 때 외부의 조언이나 교육 과정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진로 선택 동기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의지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고, 어떤 교육 환경에서 동기 부여가 최대로 극대화 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취업 의지는 교육생들이 전문성 개발뿐만 아니라 경력 계획 장기적으로 수립하는데 중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스포츠 재활 분야에서 성공적인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1. 표본설계와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스포츠 재활 교육이 심리적 반발을 통해 진로 및 취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스포츠 재활 교육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로 연구자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해 동의를 얻은 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받았다. 최종 21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총 21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 재활 교육

과 심리적 반발 그리고 진로 및 취업 의지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측정 항목들을 정리하였다. 연구목적에 맞추어 선행연구에 제시된 항목들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였으며, <표 1>과 같이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잠재적 변수들 사이의 상호작용 및 이들이 특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분산 구조 분석 방법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가설에서 제안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넘어서, 측정된 값들과 잠재 변수들 사이의 복잡한 인과 관계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 도구로는 통계 분석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와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s) 소프트웨어가 활용되었다. SPSS는 다양한 기술적 및 추론적 통계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AMOS는 공분산 구조 분석을 포함해 복잡한 모델링과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방정식 모델링 도구이다.

이를 통해 공분산 구조 분석과 선택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여 잠재 변수 간의 관계와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가설을 엄격하게 테스트했으며 결과는 잠재 변수 간의 복잡한 인과 관계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3. 가설설정

3.1. 스포츠 재활 교육과 심리적 반발 간의 관계

스포츠 재활 교육과 심리적 반발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심리적 반발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교육 영역에서 심리적 반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학습자들이 재활 교육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라고 느끼거나 교육 과정이 너무 지시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있다 [30].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재활 프로그램이나 교육 내용에 반발심이 생길 수 있다 [17]. 그러므로 첫째, 교육자 교수법으로 스포츠 재활 교육자들은 교육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선택의 자율성과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교육생은 교육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고, 학습 과정에 자율성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교육자 지식 및 역량으로 교육자들은 교육생이 재활 교육을 전달할 때 교육자들의 의사소통 방법과 높은 지식수준과 역량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반면 교육자의 지식 전달 태도가 너무 융통성이 없거나 지시적일 경우 교육생은 심리적 반발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참여도와 학습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셋째, 교육생 역량으로 학습자들이 교육자의 지식을 잘 받아들이고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학습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교육생들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고, 학습자의 역량이 높을수록 심리적 반발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스포츠 재활 교육 내용이 얼마나 학습자들이 재활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학습자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더 이해하며, 교육을 듣고자 하는 심리적 동기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잘 구성된 스포츠 재활 교육 내용은 교육자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에게도 교육에서 목표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재활 교육 환경은 학습자들이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교육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되어야 학습자들의 심리적 반발이 낮아질 수 있다. 실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포츠 재활 교육 환경은 학습자들이 실제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과정에서도 현실과 학습의 괴리를 낮출 수 있어 더 현실적인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생들의 심리적 반발을 이해하고 스포츠 재활 교육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가설 1-1: 스포츠 재활 교육 중 교육자 교수법은 심리적 반발에서의 자발적 심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스포츠 재활 교육 중 교육자 지식 및 역량은 심리적 반발에서의 자발적 심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스포츠 재활 교육 중 교육생 역량은 심리적 반발에서의 자발적 심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스포츠 재활 교육 중 스포츠 재활 교육 내용은 심리적 반발에서의 자발적 심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스포츠 재활 교육 중 스포츠 재활 교육 환경은 심리적 반발에서의 자발적 심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스포츠 재활 교육 중 교육자 교수법은 심리적 반발에서의 비자발적 심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스포츠 재활 교육 중 교육자 지식 및 역량은 심리적 반발에서의 비자발적 심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스포츠 재활 교육 중 교육생 역량은 심리적 반발에서의 비자발적 심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스포츠 재활 교육 중 스포츠 재활 교육 내용은 심리적 반발에서의 비자발적 심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스포츠 재활 교육 중 스포츠 재활 교육 환경은 심리적 반발에서의 비자발적 심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심리적 반발과 진로 의지 간의 관계

학습자들의 부정적 심리적 반발이 강할수록 진로를 선택할 때 외부적 제한이나 압력에 더 강하게 저항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 [26]. 학습자들의 심리적 반발은 오히려 자신의 진로 목표를 더 강하게 주장하는 데 역할을 할 수도 있거나 외부 저항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22]. 심리적 반발은 그 수준이 너무 과하게 발생 될 경우 오히려 진로의 선택이나 개인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는 외부의 지원이나 의미 있는 조언을 거절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수준의 심리적 반발은 스포츠 재활 교육 프로그램 학습자들에게 진로 선택이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수준 이상의 심리적 반발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학습자의 심리적 반발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12]. 또한, 학습자에게 심리적 반발과 진로 의지 간의 상관성은 궁극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심리적 반발의 관리 중요성은 강조가 되어 왔다. 심리적 반발은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진로 선택을 외부의 방해 혹은 제한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기능도 있으나, 학습자들이 외부의 기회나 유익한 조언도 거부하게 되는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 재활 교육 학습자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독립성을 키워주고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한 심리적 반발의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가설 3-1: 심리적 반발 중 자발적 심리는 진로 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심리적 반발 중 비자발적 심리는 진로 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심리적 반발과 취업 의지 간의 관계

취업 의지 영역에서 학습자들의 심리적 반발은 자발적, 비자발적 심리적 반발 두 가지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다 [26]. 우선 학습자들의 자발적 심리적 반발을 살펴 보면, 학습자들이 취업 의지를 가지고, 취업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옮길 때 자발적 반발은 자신의 취업 결정을 따르고 그에 따른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대된다 [1]. 이는 스포츠 재활 교육 학습자들이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부의 부정적인 환경, 즉, 취업 실패, 적성에 맞는 취업 기회 부족 등에서도 자발적 심리적 반발은 취업 의지가 강해 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19]. 반면 학습자들의 비자발적 심리적 반발은 취업 과정에서 타인이 주는 조언이나 관심에도 오히려 반발감이 발생하도록 영향을 주어 오히려 취업 의지가 낮아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외부 환경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취업 의지를 떨어트릴 위험성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반발이 잘 관리되어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취업 결정뿐만 아니라 직장 선택에도 개인의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균형 있는 심리적 반발이 취업 의지를 견고히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표 2. 측정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Table 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items

| 변수 | 측정 항목 | 요인 적재량 | 측정 오차 | Cronbach's α | C.R | AVE |
|-------|--------|--------|-------|--------------|-------|-------|
| 교수법 | 교수법1 | 0.746 | 0.246 | 0.801 | 0.868 | 0.687 |
| | 교수법2 | 0.785 | 0.211 | | | |
| | 교수법3 | 0.754 | 0.335 | | | |
| 교육자 | 교육자1 | 0.778 | 0.172 | 0.822 | 0.894 | 0.738 |
| | 교육자2 | 0.791 | 0.203 | | | |
| | 교육자3 | 0.79 | 0.283 | | | |
| 교육생 | 교육생1 | 0.872 | 0.253 | 0.902 | 0.892 | 0.733 |
| | 교육생2 | 0.878 | 0.258 | | | |
| | 교육생3 | 0.856 | 0.312 | | | |
| 교육 내용 | 내용1 | 0.856 | 0.212 | 0.890 | 0.907 | 0.765 |
| | 내용2 | 0.859 | 0.235 | | | |
| | 내용3 | 0.848 | 0.226 | | | |
| 교육 환경 | 환경1 | 0.716 | 0.202 | 0.782 | 0.872 | 0.694 |
| | 환경2 | 0.777 | 0.211 | | | |
| | 환경3 | 0.737 | 0.32 | | | |
| 자발적 | 자발적1 | 0.835 | 0.227 | 0.869 | 0.880 | 0.709 |
| | 자발적2 | 0.874 | 0.223 | | | |
| | 자발적3 | 0.78 | 0.398 | | | |
| 비자발적 | 비자발적1 | 0.811 | 0.346 | 0.901 | 0.897 | 0.743 |
| | 비자발적2 | 0.898 | 0.212 | | | |
| | 비자발적3 | 0.898 | 0.226 | | | |
| 진로 의지 | 진로 의지1 | 0.879 | 0.197 | 0.850 | 0.882 | 0.713 |
| | 진로 의지2 | 0.782 | 0.29 | | | |
| | 진로 의지3 | 0.777 | 0.312 | | | |
| 취업 의지 | 취업 의지1 | 0.852 | 0.16 | 0.842 | 0.891 | 0.732 |
| | 취업 의지2 | 0.812 | 0.314 | | | |
| | 취업 의지3 | 0.758 | 0.242 | | | |

가설 4-1: 심리적 반발 중 자발적 심리는 취업 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심리적 반발 중 비자발적 심리는 취업 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로는 남성이 112명(52.8%), 여성이 100명(47.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서울 및 경기도 응답한 학생은 89명(42.0%), 서울 및 경기 외 모든 지역으로 응답한 학생은 123명(58.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별로 1학년이 28명(13.2%), 2학년이 85명(40.1%), 3학년이 65명(30.7%), 4학년이 34명(16.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 수업을 듣는 과목 수로는 전공 필수와 선택을 포함한 3과목 미만은 29명

(13.7%), 3~5과목 미만은 68명(32.1%), 5~6과목 미만은 84명(39.6%), 6과목 이상은 31명(14.6%)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전공 수업을 위해 전공에 투자하는 시간으로는 1시간 미만은 11명(5.2%), 1~2시간 미만은 29명(13.7%), 2~5시간 미만은 53명(25.0%), 5~7시간 미만은 30명(14.2%), 7시간 이상은 89명(42.0%)으로 나타났다.

2. 측정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최종 수집된 데이터(n=212)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측정 항목의 신뢰성 검사와 타당성 검사가 있다. 이 중 타당성은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신뢰성 검증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ronbach's α 계수(0.7 이상)를 이용하였다[6]. AMO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중 요인 적재값을 집중타당성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요인적재량은 ±0.4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9].

판별 타당성은 유사한 두 개의 개념이 뚜렷이 구별되는 정도를 검증하며, 이를 위해 Fornell과 Larcker[5]가 제시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Pearson 상관관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구성개념에서 AVE의 제곱근 값이 해당 구성개념과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값을 초과하면 판별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31].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뢰성 측정 결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은 없었으며, 신뢰성 검증에 사용된 Cronbach's α 값은 0.782에서 0.902로 분포되어 권장치(0.7 이상)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항목의 신뢰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6]. 또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요인적재 값 역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항목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균분산추출 값을 이용한 판별 타당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9]. 이러한 결과는 설문 문항의 내적 일관성 및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표 2>는 측정모형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

표 3. 구성개념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Table 3. Correlations among Constructs

| 요인 | 요인 간 상관계수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교수법 | 0.829 | | | | | | | | |
| 교육자 | .696** | 0.859 | | | | | | | |
| 교육생 | .485** | .632** | 0.856 | | | | | | |
| 교육내용 | .494** | .661** | .850** | 0.875 | | | | | |
| 교육환경 | .682** | .714** | .649** | .693** | 0.833 | | | | |
| 자발적 | .597** | .655** | .616** | .575** | .601** | 0.842 | | | |
| 비자발적 | -.510** | -.575** | -.698** | -.656** | -.561** | -.571** | 0.862 | | |
| 진로 의지 | .580** | .652** | .573** | .553** | .655** | .678** | -.545** | 0.844 | |
| 취업 의지 | .713** | .744** | .681** | .695** | .709** | .681** | -.644** | .639** | 0.856 |
| 평균 | 4.008 | 4.006 | 3.583 | 3.742 | 4.055 | 3.781 | 2.571 | 4.094 | 3.904 |
| 표준편차 | 0.671 | 0.654 | 0.969 | 0.827 | 0.620 | 0.848 | 0.958 | 0.786 | 0.726 |

** p<0.01 number at the diagonal line is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이 대각선에 표기한 분산추출 값의 제공근 값이 각 요인의 상관계수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구성 개념들 간의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3.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측정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후에, 수집된 데이터가 연구 모형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총 27개의 측정 항목으로 실시하였다. 적합도 검증은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GFI(Goodness-of-fit Index) 0.9 이상이며, NFI(Normed Fit Index) 0.9 이상,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05 이하, CFI(Comparative Fit Index) 0.9 이상에 대한 p값(>=0.05) 등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적합도는 $\chi^2=501.177$ (df=288), p=0.000, CMIN/DF=1.74, GFI=0.862, NFI=0.894, CFI=0.951, RMSEA=0.059, AGFI=0.818, TLI=0.941, IFI(Delta2)=0.952로 모든 지수가 권장치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본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가 연구 모형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4. 연구 가설 검증 결과

총 212개의 데이터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후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구조 방정식(SEM)을 실시하였다. 구조 방정식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첫 번째 결과는 구조모형의 적합도 정도이다. 이에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576.383$ (df=300), p=0.000, CMIN/DF=1.921, RMSEA=0.066, NFI=0.878, CFI=0.937, GFI=0.841, AGFI=0.8, TLI=0.926, IFI(Delta2)=0.938로 나타났다. 이는 홍세희 [6]가 제시한 모델적합도 지수 중 CFI, TLI, RMSEA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째, 스포츠 재활 교육 중 교육자 교수법은 심리적 반발에서의 자발적 심리에 $\beta=0.103$ 으로 나타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교육자 지식 및 역량과 교육생 역량은 각각 $\beta=0.495$, $\beta=0.545$ 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1-2와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하지만, 스포츠 재활 교육 내용과 스포츠 재활 교육 환경은 자발적 심리에 각각 $\beta=-0.569$, $\beta=0.314$ 로 나타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4와 가설 1-5는 기각되었다.

둘째, 스포츠 재활 교육 중 교육자 교수법은 심리적 반발에서의 비자발적 심리에 $\beta=-0.548$ 로 나타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마찬가지로 교육자 지식 및 역량도 비자발적 심리에 $\beta=0.027$ 로 나타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교육생 역량은 비자발적 심리에 $\beta = -0.714$ 로 나타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2-3은 지지가 되었다. 하지만, 스포츠 재활 교육 내용과 스포츠 재활 교육 환경은 비자발적 심리에 각각 $\beta = -0.052$, $\beta = 0.309$ 로 나타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4와 가설 2-5는 기각되었다.

셋째, 심리적 반발 중 자발적 심리는 진로 의지에 $\beta = 0.869$ 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하지만, 심리적 반발 중 비자발적 심리는 진로 의지에 $\beta = -0.095$ 로 나타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넷째, 심리적 반발 중 자발적 심리는 취업 의지에 $\beta = 0.604$ 로 나타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4-1은 채택되었다. 마찬가지로 심리적 반발 중 비자발적 심리는 취업 의지에 $\beta = -0.2$ 로 나타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4-2는 채택되었다.

V. 결론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스포츠 재활을 전공하고자 진학한 학생들 또한 학과에 적응하고, 전공 관련 진로 모색,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새로운 균형을 찾고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포츠 재활 교육이 심리적 반발을 통해 진로 및 취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스포츠 재활 교육자의 지식이 자발적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부상으로 인해 회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심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스포츠 재활 교육자들은 교육생들이 받을 수 있는 우울감에서부터 불안, 스트레스 등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지식을 주어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로써, 교육생들은 부상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고, 재활 과정으로 더 빠르게 본업에 복귀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심리적인 회복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스포츠 재활 교육자들은 학습자들에게 부상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의

잠재력과 운동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 주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지원은 학습자들이 재활 교육 과정에서 참여도가 높아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교육에 임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이 발달하도록 영향을 주게 된다.

둘째, 스포츠 재활 교육자의 역량이 자발적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자의 역량에 따라 학습자들의 다양한 한계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교육자의 자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스포츠 재활 교육자들이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과 공감 능력으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여 재활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산적인 방안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처럼 교육자의 전문 역량은 학습자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고,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강력한 동기를 주어 더 적극적으로 재활 교육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교육자의 역량이 적극적으로 발휘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교육자의 역량은 학습자들에게 단순한 교육 전달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 개발 등 장기적인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간주된다.

셋째, 스포츠 재활 교육자의 역량이 비자발적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재활 과정에 참여 시 개인의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등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을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지원이 부족하게 될 때, 학습자들의 비자발적 심리적 반발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한다. 학습자들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재활 교육 과정의 효율성이 낮아지도록 유도하고, 교육의 이해 부족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교육자들의 역량으로 인해 개별 학습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학습자들은 더 불안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 재활 교육자들에게 학습자들의 심리 상태에 반응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이 요구되어 진다. 즉, 재활 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는 노력이나 환경이 요구되며, 학습자들의 정신력은 교육 완료 후에도 이어지고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추후 역량 개발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자발적 심리가 진로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발적 심리를 가진 학습자일수록 자신의 진로와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학습자들 중 자발적 심리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효능감이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 그들이 세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강해진다. 그리고 자발적 심리 상태는 학습자들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도전 상황이나 제한 상황에서도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와주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기여하고, 개인적인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자발적 심리는 진로 설정 및 성취 과정에서 일시적 동기 부여 이상으로 실제적인 목적 달성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의 진로가 성취되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자발적 심리가 취업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반대로 비자발적 심리가 취업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활 교육 과정에서 학습자의 심리 상태가 의사결정이나 직업 탐색 또는 직업적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학습자들이 자발적 심리를 가질수록 스스로 동기 부여되거나 자신감을 더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취업을 하기 위해 취직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취업 도전을 실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편, 학습자들이 비자발적인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을수록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안함,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취업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학습자들이 취업 준비 시 면접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의 경력 발전 및 직업적 성과에도 한계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은 취업을 준비할 때 자신의 자발적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거나 자발적 심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취업 경험은 다시 그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선순환 구조로 취업 성취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다음의 제한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다양한 스포츠 분야를 다루지 않고 일부 스포츠 재활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설계는 설문조사와 정량적 방법론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다양한 심리적 반발, 진로 의지, 취업 의지의 복합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질적 연구방법론으로 추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스포츠 재활 교육과 학습자의 심리적 영향 간의 매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다루거나 심도 있게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추후 이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역이나 사회적 배경을 가진 대학생들의 환경 등 배경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 결과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이 보완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Ahn, T. U., & Kang, T. W,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Capability on the Employment Volition: Focused on the Mediator Effect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search*, Vol. 20, No. 5, pp. 81-89, 2017. DOI : 10.17961/jdmr.20.5.201710.81
- [2] Ahn, T. U., & Park, J. W,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career path of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3, No. 2, pp. 177-192, 2018. DOI : 10.16972/apjbe.13.2.201804.177
- [3] Cho, B. H., & Park, M. J, "The relationship among creativity personality, career awareness, and occupational aspiration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 11, No. 3, pp. 447-463, 2012.
- [4] Cho, K.H, "A Convergent and Combined Activation Plan for Exercise Rehabilit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4, No. 8, pp. 407-426, 2020. DOI : 10.21184/jkeia.2020.12.14.8.407
- [5] Fornell, C., & Larcker, D. F,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pp. 39-50, 1981.

- [6] Hong, S-H, "Selection criteria and basis for goodness-of-fit index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19, No. 1, pp. 161-177, 2000.
- [7] Jo, H. J., & Chang, C. G, "Study on the Effect of Education Service Quality Influencing to the Course After graduation-focused on the Students of Technical College in Seoul & Gyeonggi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 26, No. 1, pp. 8-18, 2020.
- [8] Kang, E., Kim, C. J., Choe, S. U., Noh, T., Yoo, J., & Kim, H. B, "The Chang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4 th Graders' Career Aspirations in Science and Science Identiti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Vol. 35, No. 5, pp. 841-856, 2015.
- [9] Kang, H, "Discussions on the suitable interpretation of model fit indices and the strategies to fit model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5, No. 2, pp. 653-668, 2013.
- [10] Kim, D-H, "Key Topics in Rehabilitation Psychology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 Comparison Using Keyword Network," *Journal of Rehabilitation*, Vol. 25, No. 3, pp. 447-460, 2018.
- [11] Kim, H. J., & Jeong, S. H, "Factors affec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ddiction to smartphones: Parental mediation, school-based education, and psychological reactance,"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Vol. 32, No. 1, pp. 87-120, 2015.
- [12] Kim, H., & Kim, Y, "The effects of controlling language and message orientation on pro-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s in environmental communication: Focusing on the moderation effects of issue involvement and the mediation effects of psychological reactance," *Advertising Research*, Vol. 116, pp. 138-179, 2018. DOI : 10.16914/ar.2018.116.138
- [13] Kim, H., Kwak, Y., Kang, H., Shin, Y., Lee, S., & Lee, S. Y, "A study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mong components of positive experiences about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Vol. 37, No. 3, pp. 507-521, 2017.
- [14] Kim, J-H & Kim, Y-S, "A Study on the Influence of Business will through the Satisfac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elf-efficiency, which is based on Social Capital and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cusing on the Controlling Effect of Mentoring,"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Vol. 34, No. 6, pp. 561-582, 2019. DOI : 10.23839/kabe.2019.34.6.4.561
- [15] Kim, M-M, "The convergence of ICT sports rehabilitation and school physical educ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12, pp. 145-156, 2019. DOI : 10.22251/jlcci.2019.19.12.145
- [16] Kim, N-H, "The role of tourism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competency,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and intention to get a job,"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Vol. 23, No. 1, pp. 181-197, 2021. DOI : 10.31667/jhts.2021.2.86.181
- [17] Kim, S-H, "Exploratory Study about Obstacle Factor of Rehabilitation in College Soccer Players," *Journal of Wellness*, Vol. 12, No. 1, pp. 667-676, 2017. DOI : 10.21097/ksw.2017.02.12.667
- [18] Kim, Y-S, "Analysis of Curriculum Status of Department of Sports Rehabilitation," *Journal of The KOHVEA*, Vol. 20, No. 2, pp. 21-29, 2022.
- [19] Lee, H-E,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Willingness to Work, Job-Seeking Efficacy and Job Preparation Behaviors based on Adult Learn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Lifelong Education Convergence Research*, Vol. 2, No. 1, pp. 5-29, 2023.
- [20] Lee, S. H, "Occupation Understood, School Life Satisfaction, Impact on the Employment Capacity-Building Training and Educational Support Services Rely Research,"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0, No. 4, pp. 167-177, 2016.
- [21] Lee, S-J., Park, W-Y & Lee, B-K,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Mentoring on the Entrepreneurial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Physical Educatio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Vol. 31, No. 12, pp. 407-422, 2019.
- [22] Lee, S-Y & Kim, H-J, "A Study on the Factors to Influence e-Learning Flow and Satisfaction;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the e-learning Motivation," *Journal of Management & Economics*, Vol. 43, No. 3, pp. 115-140, 2021. DOI : 10.22828/meri.2021.43.3.006
- [23] Lee, Y,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block-type programming language-based

-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on the learner's attitude in artificial intelligenc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Vol. 23, No. 2, pp. 189-196, 2019.
- [24] Lee, Y-J., Yun, J-Y & Park, Y-H, "Analysi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search and its Relationship to Secretarial Studies,"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Vol. 21, No. 3, pp. 109-133, 2012.
- [25] Oh, M. Y, "A Study on Psychological Reactance to Product Placement in TV dram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Vol. 55, No. 6, pp. 384-409, 2011.
- [26] Park, C. U., & Lee, S. B, "A Study on Voluntary Acceptance and Diffusion of Game Shut-Down Policy Based on Excellence Theory and 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Vol. 11, No. 2, pp. 93-106, 2012.
- [27] Shin, H-U & Kim, S-J, "Analysis of Job Function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in Korea,"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 23, No. 1, pp. 83-105, 2013. UCI : G704-001534.2013.23.1.004
- [28] Song, W-K, "Rehabilitation application of virtual reality technology," *Robots and Humans*, Vol. 15, No. 4, pp. 8-14, 2018.
- [29] Yim, K-T,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Players' SNS Interaction, Relationship Immers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Loyalt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6, pp. 233-241, 2022.
- [30] Yoo, S. W., Park, K. H., & Na, E. Y, "The effect of psychological reactance and fear of influenza A (H1N1) message on the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4(3), 27-53, 2010. UCI : G704-000203.2010.54.3.007
- [31] Yu, J-P, "The Effects of Measurement Errors on Path Coefficient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Path Analysis," *Journal of Korea Service Management Society*, Vol. 16, No. 3, pp. 161-181, 2015. DOI : 10.15706/jksms.2015.16.3.008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orea Nazarene University Research Grants, 2024.